

# 얼굴 하나로 다 되는 세상 온다

광주시의 한 헬스장. 헬스장 고객이 얼굴인식 단말기 앞에 선다. 단말기에 얼굴을 들이민다. 2초도 안돼 이름이 확인되고 문을 열고 헬스장으로 입장한다.

지문, 홍채에 이어 얼굴인식이 새로운 생체인식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얼굴'이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대신하며, 출입증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

얼굴인식 기술은 눈, 코, 입 등 100여가지 얼굴 데이터를 등록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른 얼굴 모양이나 크기, 이목구비 간 거리 등을 데이터로 변환, 다른 얼굴 데이터와 대조해보는 방식이다.

복제와 해킹 가능성이 낮고 보안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이미 중국에서는 온·오프라인 결제, 출석 확인, 범인 검거, 공항 수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쇼핑·금융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눈·코·입 등 100여가지 얼굴 데이터로 신원 확인 금융·쇼핑 분야 상용화

생체정보 분실 우려 낮고 지문보다 안전·정확성 ↑

신한카드 내달 결제 서비스 롯데·신세계 면세점도 도입

장소에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상용화하면서 '얼굴' 하나로 모든게 다되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

(앱) 인증 같은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IT 전문가들은 얼굴 등의 생체정보는 복제나 분실 우려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맥은 사람마다 굵기, 모양, 선명도 등이 달라 지문인식보다 정확성이 높고, 얼굴인식 역시 3D 카메라로 얼굴 굴곡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최근 내란히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며 중국인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지난 28일 롯데면세점은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을 '스마일 투 페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29일 롯데면세점은 명품본점 설화수 매장을 시작으로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영 기자 young@

## 남구 과학 꿈나무들 1박2일 발명캠프



다음달 2·3일 11개 초교 35명 참가

광주시 남구(청장 김병내) 지역내에서 발명가를 꿈꾸는 초등학생 인재들이 순천만 일원에서 과학 체험에 나선다.

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남구 내 초등학생들에게 과학·발명 전문 프로그램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순천만 천문대 등지에서 1박 2일 과학발명 캠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학발명 캠프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남구 내 11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팀을 이뤄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체험활동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참가 학생들은 첫째날인 11월 2일 오전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탐방한 뒤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생태관에서 진동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동

로봇을 직접 만들어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블록 조립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골드버그 마블러 장치를 완성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팀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순천만 천문대로 이동해 2시간 가량 천체 망원경을 통해 가을철 별자리를 관측하는 별빛 체험활동도 함께하게 된다.

둘째날인 3일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스텝버거와 마이크로 로봇 놀이를 통해 순차적 사고에 대해 배우는 체험활동과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비행체를 떠받치는 양력 원리 및 해면 효과를 이용한 위그선 만들기도 체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과학적인 원리가 반영된 현장학습 체험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발명에 대한 의욕도 높여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학발명 캠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 과학 전문가에게 듣는 새로운 과학

조선대 다음달 27일까지 과학문화초대석 4회 특강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은 3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019학년도 2학기 과학문화초대석'을 개최한다.

조선대학교 과학문화초대석은 과학, 과학교육, 과학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강연을 통해 최근 과학 이슈나 창의적 성과 등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강좌다.

31일 조선대 자연과학관 1308호에 시작하는 첫 강연에서는 김트든 연구교수(성균관대학교 나노구조물리연구단)가 '메타물질: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물질의 물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공물질인 메타물질에 대한 최근 연구

를 소개한다.

이어 다음달 6일 자연과학관 4204호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강연에선 박순창 메타스페이스 대표를 초청해 국내외 '천문투영관 설치 및 유지 사업'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강좌를 통해 제공한다. 강연 제목은 '천체투영관의 역사와 국내 천체투영관 현황 및 전망'이다. 이 강연에서는 천체투영관의 역사와 현황을 바탕으로 천체투영관의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달 14일(자연과학관 1308호) 세 번째 강연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

구소장 백성해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수법:4P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이끈다.

27일(자연과학관 1308호)에는 류종민 한국생물공학연구원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부터 새로운 플라스틱 분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한편 조선대학교 과학문화초대석은 지난 2014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과학문화교육사업단)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매학기 꾸준히 진행돼 왔다. 올해부터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에서 공동 주관해 운영된다. 조선대학교 과학문화초대석 강연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채희종 기자 chae@

## 이동전화 피해구제 신청 LGU+ 최다

최근 3년간 3396건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가운데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LGU+)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296건, SKT는 237건이었다.

이를 가입자 100만명당으로 환산해도 LGU+가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17건, SKT는 8.6건이었다. /연합뉴스

2015년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은 LGU+가 39.6%나 증가한 반면 SKT(-30.6%)와 KT(-17.1%)는 오히려 감소했다.

피해 발생 시점별로 분석하면 LGU+는 가입(94.9%)과 이용(60.8%), 해지(44%) 단계 모두에서 2015년보다 증가했지만, KT(86%)와 SKT(7%)는 해지 단계에서만 늘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피해 구제 합의를 제고 등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약정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